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장: 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 서울·수원(본사편집실)

방학중 수원캠퍼스 공동화 학교지원, 학생 관심 요구돼

오랜 동안 끝에 봄기운과 함께 가지개를 편 캠퍼스가 활기차다. 방학은 우리에게 재충전의 많은 시간을 부여한다. 내게 있어서도 긴 겨울은 동면을 연상할 만큼 오랜 휴식이었다. 그러나 도서관을 드나들며 느꼈던 지난 두어달 즈음의 시간이란 수월 교정의 생리를 이해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신입생이었던 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을 터라. 또 그만큼 작은 사건에서 큰 기쁨이나 충격을 받기도 한다.

3년과 그후로도 이어질 무한한 시간들이 암울하기만 하다. 개강한지 일주일인 오늘 나는 다시 방학을 생각한다.

최명주
(농학·2)

“총학생회장님 밥 좀 사주세요” 식당뿐만 아니라 생활중에도 만났으면

91학번 새동아들이 맞이해서 신선한 얼굴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요즘, 그들의 행동양식과 나의 2년간의 대학생활을 비교해보면 내가 이만큼 걸어왔구나 하는 성취감과 함께 매년 느끼는 제도교육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더구나 기층단위조직 즉, 학우대중을 단결시킬 수 있는 최소 기본단위이며, 모든 사업의 직접적인 집행단위이고, 의사수령의 최소단위라는 과학생의 회장을 맡고 있는 나로서는 후배들의 신선함과 발달한 뒤에 보여지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생활에 대한 미숙함이 느껴진다. 특히 학생회라는 조직에 대해 불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즉 초·중·고교 과정에서 강요된 집단주의로 인한 주체성의 박탈이 현실로서 다가오고 있고 그와 함께 학생회를 운동권 학생들로부터 이루어진 음모를 꾸미는 조직이란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시각은 지난 2월말에 있었던 M·T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민족자주정통총학생회와 각급학생회에 신선한 바람이 일고있는 것이 보여져서 학생회의 대중성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M·T때도 총학생회장님과 단대학생회장이 우리과에 들어와서 어설픈 몸짓으로 ‘겨울도 안보이는 여자’를 91새동아들과 열창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장면이 새동아들에게는 참으로 친숙한 분위기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개강후 그 친숙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요즘 총학생회장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수많은 모순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생겨난 부정들 또한 해결되지 못한 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1991년의 시작과 함께 그동안 심증으로만 그쳤던 정치, 경제분야의 부정사건들이 우리앞에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특히 ‘음악대학 입시부정’사건은 시대의 양심이며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마저도 기성세대의 왜곡된 가치관과 황금만능주의로 물들어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더욱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이 그러한 추한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거액의 돈을 들여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일반인들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끼며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특수한 계층으로 인식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다수의 언론사들은 흥미위주의 기사들을 작성하여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그릇된 인식은 더욱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만 있습니다. 입시부정은 음악대학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전혀 무시한 교육행정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대학에 입학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모순, 교육자들의 버려진 양심, 예술진

흥정책의 부재등으로 이루어진 언젠가는 드러날 수 밖에 없었던 음악계의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기에 이러한 부정과 비리는 우리사회의 전반적 모순으로부터 기인합니다. 더구나 ‘정렬한 정적’을 하겠다고 나선 6공화국의 정치인들이 집없는 시민들을 우롱하며 저지른 그들의 부정이 공개되자 사건을 축소조작 하려고 하며, 이것이야말로 시대의 본질과 그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인들의 부정비리에도 불구하고 우리주위에는 인생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악을 팔아먹고 부정을 저지른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음악을 사랑하고 진정한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음악인들은 꾸준한 자신의 실력을 연마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들에 음악인들은 예술가로서의 뚜렷한 자기주관을 세워야만 할 것이며 아울러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인식들이 자리 잡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정부는 입시부정을 막을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미봉책에 그칠뿐이며 또 다른 부정을 유발시킬 것임이 분명합니다. 교육행정의 시행과 현실에 맞는 예술진흥 정책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인규
(기약·4)

서대훈 (일문·3)



복지장학생 신청접수 16일까지 인복위에서

서울캠퍼스 인복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는 오늘부터 16일까지 복지장학생 접수를 인복위사무실에서 받는다. 총2천만원의 장학금으로 1백명을 선발하게 될 이번 장학생 신청접수에서 장학금지급을 신청할 학생은 지방세·국세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성적증명서 1통, 인복위교부신청서, 단과대 학생회장 추천서를 인복위사

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계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교내 주차난해결을 위해 새스티커 교부를 인복위주관하에 총무과에서 3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경희여성’편집위원 모집

수원캠퍼스 총여학생회 편집위원회는 회지 ‘경희여성’의 수습기자를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편집실부(편집디자인, 만화, 사진, 취재·설문조사, 현장 취재), 연구위원(여성문제)이고, 응모자격은 편집에 관심 있는 90·91학번 남녀학생이다. 응모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응모요령은 총여학생회에서 원서 작성 후 간단한 시험을 거쳐 선별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내전화 2807)

교수동정

김광수교수 일본행

▲서성훈(의대·약학과)교수=지난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간호학과 대학원 교육연수차 도미 ▲김광수(의대·간호학과)교수=지난 4일부터 오는 7월4일까지 DDS및 약물의 pharmacokinetics연구차 일본방문.

동문모임

목포고 동문회

【서울캠퍼스】▲포항 남·여교=오는 12일 오후6시, 복래관 ▲대성·인성교=오는 15일 오후5

시, 녹원 ▲목표교=오는 15일 오후5시, 교문앞 대빈정 ▲서귀포교=오늘오후6시, 아미데우스 ▲우신교=오는 16일오후5시, 체대앞 녹원 ▲안성교=오는 15일 오후6시, 복래관

습득

본실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한승만(수학·88) ▲류상학(행정·89)▲장재정(신방·90)▲허현(경제·90)▲김영준(경제·90)▲손인기(경영·90)▲허영미(기약·90)▲이영신(의상·90)▲이형민(의예·90)▲손호진(의예·88)▲손무성(한의예·89)▲이정란(한의예·90)▲김석재(치의예·88)▲신나라(작곡·89)▲김윤호(체육·90)▲이현주(체육·90)▲이준용(체

육·90)◆도서대출증=▲노상호(치의예·87)▲임인학(치의예·89)

【수원캠퍼스】◆학생증=▲황영주(중문·89)▲김수진(일본·89)▲안소옥(불문·90)▲박윤희(무역·90)▲최지현(회계·90)▲김은주(건축공·90)▲정훈화(토목공·89)▲박형배(전자공·88)▲정해경(원예·89)◆도서대출증=▲허노관(회계·84)▲이춘권(경영·86)▲남정현(유전공·88)▲조형범(산업공·87)

분실

습득자 본사 편집실로

【수원캠퍼스】▲김영기(환경·86)=고등생 지갑. 지난 6월초 학생회관 현관앞에서 ▲지정민(토목공학·91)=지난 6일, 황토

탐구열정으로 가득한 첫출발



3월주제 ‘개강’

사방을 바라보며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슬픈일은 없었



김용욱
(공대교수·회공)

배우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썩어지는 승리의 월계관이 마침

내 민주화의 발걸음으로...

하루, 하루는 묘시에 새벽잠이 깨면서 시작됨과 같이 배우는 학생들은 모든일에 사랑과 애정으로 다하고 실천할 때 참된 진리를 얻을 것이다. 이제 상이탐의 시작은 ‘개강’으로 울리면서 승리와 학생이 상현한다. 서로가 하나된 상황에서 몇년전부터 몇십년전까지의 흐름을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평가, 토론과 대화로 새문화의 창조작업을 이루듯이 오늘 우리는 지난 한해의 오류를 반성하고 밝은 내일을 기억하여야 할때이다. 어린 유아가 태어나 울음(탈)이 세상을 호령하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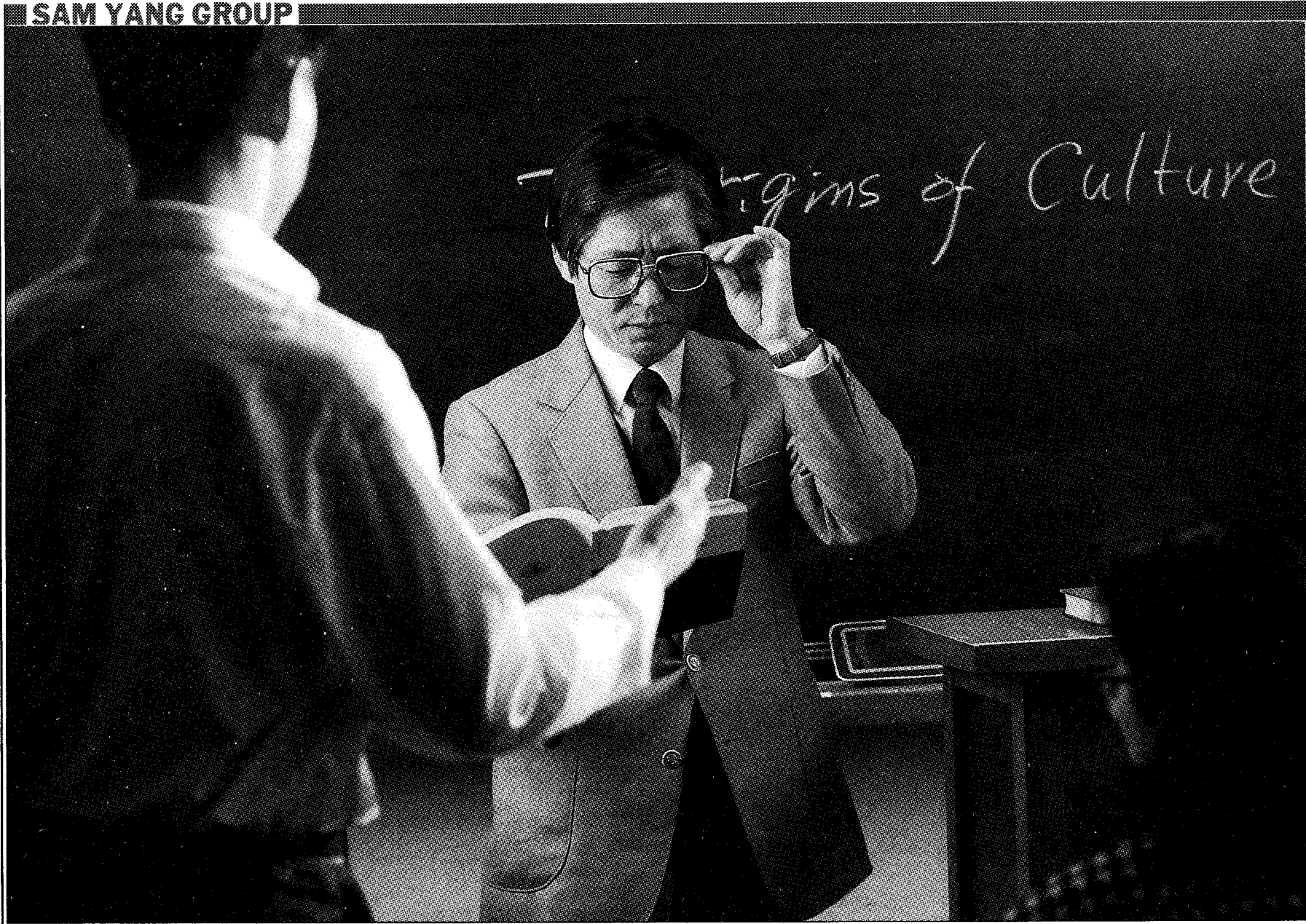
는지?’, ‘즐거운 일, 슬픈일은 없어썩지’, ‘전강 하겠는지’, ‘가정은 평안 하겠는지?’등의 대화가 오고 간다. 이제 우리는 급급한 미래의 지식을 주관적, 객관적으로 습득해야 하며, 시청각적 흡수인자를 통해 두뇌를 바쁘게 움직여야 할 때인 것이다. 모든 계획은 순간에 설정되는 것이다. 수업을 투자가 있어야 얻게되는 진리이다. 사실 학생시절 본인의 경험의 결과이기도 하다. 검은 대륙(철학)에 황색인(교수)이 백인(백목)의 삶과 피가 역사의 자치로 기록되고, 시간이 지나면 부화되

어 본질의 모습이 조금 탈색되기도 하겠지만, 본연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진정한 인간적인 정은 한가롭게 화목한 모습이 함께 하듯 우리의 학원생활의 정감 어린 분위기 또한 항상 온후한, 정서로간의 사랑으로서 유지 변영될 것이다. 우리의 지구촌은 5대륙 6대양으로 서로의 피부색은 각각 다르지만 그 나름의 특성으로 나타나 현 인류의 역사에까지 왔다. 사람의 희망인 역사의 변혁은 수많은 인간에 의해 영광과 치욕의 수레바퀴를 거듭하면서 보다 나은 사회로 나왔다. 배우자하는 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결국 승리의 월계관이 올라가 오늘 우리는 계속 인간본능의 발로이기도 한 민주사회로 발걸음을 딛고 있는 것이다. 첫날이 개강이며, ‘시작이 반이다’는 말같이 시간의 흐름은 다시 말지 못한다. 우리는 존엄을 아껴 금같이 생각하여 첫개강의 맑은 마음으로 한학기 15주를 마칠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스승과 자신들의 성장을 웃음속에 기억하며 개강을 맞이하여야겠다. 또한 건강은 건전한 정신을 낳듯이 각자의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겠다. 시작의 인사말 ‘안녕’처럼 창조자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의 의미처럼 좋은 세상을 생각하며 젊은 꿈을 마음껏 펼치기 바란다.

등기

등기를 총무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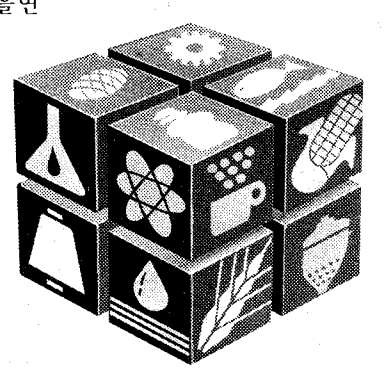
【수원캠퍼스】▲조용선(영문·3)▲김호(중문·3)▲김정근(일본·4)▲지영미(불문·4)▲이은경(서어·2)▲안지선(서어·2)▲피두순(서어·4)▲박해천(서어·4)▲최종문(회계·3)▲정재호(무역·4)▲윤영아(행정·3)▲황창연(물리·2)▲강석호(화학·3)▲백요진(화학·3)▲김현(우주·4)▲양인호(유전공·2)▲오재현(유전공·4)▲이일경(화학·3)▲권형준(원자·3)▲신정혜(식물·가공·2)



집요한 질문으로 가끔 교수님을 당황하게 한다 그래서 건방지다는 소릴 들을때가 있다

적극적인 삶, 몰두하는 젊음—
삼양그룹은 이런 젊은이들을 사랑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학구정신... 이것이 바로 삼양이 젊음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1924년 이땅에 산업의 씨앗을 뿌린 이후 섬유, 식품, 사료, 기계, 화학부문을에서 기술의 문을 연 삼양의 개척정신은 이제 새롭고 고분자, 의료용소재 및 제약,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도전합니다. 미래를 이끌 뜨거운 가슴과 진지한 눈빛의 젊은이들처럼 삼양그룹은 진취적 기상으로 보다 나은 내일,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 주식회사삼양사(化纖, 雪精, 飼料, 水産, 精製化學)
- 삼양중기주식회사
- 삼일포도당주식회사
-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식회사
- 신원제분주식회사
- 다원산업(미)버
- 삼양종합연구소
- 양평회
- 삼양정회